

불교는 대북 지원의 마지막 희망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북사업 방향 진단... 종교·시민사회 역할 강화 주문



이정철 교수가 현 남북상황에서 불교 등 종교계 역할을 강조했다.

비밀 협상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북측의 폭로가 나오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대북 상황 속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5·24조치 1년, 불교계 대북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이정철 승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다양

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철 교수와 토론자들은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불교계가 경색된 남북교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남북 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교류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天安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5·24 조치 중 남북 교역 중단과 북한 무력 도발시 자위권 발동은 우리의 피해를 동반하는 자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天安함 사건 대응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진실을 가리는 역효과, 안보민주주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위기를 '구조에서 오는 위기'와 '초청에 의한 위기'로 구분했다. 구조에서 오는 위기는 중국 영향력 강화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제어력 상실로 인한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 초청에 의한 위기는 현재의 대북 상황 자체를 북한의 위기로 인식하고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뜻한다. 통일을 위해 남한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개한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북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 흡수통일과 강압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시민사회와 더욱 협조적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철 교수는 이런 상황의 결과로 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한 번도 못한 동아시아에서 우리 정

가 될 때 국민들은 종교계를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대북지원 불허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과 달리 불교계는 거의 한 일이 없다. 불교의 역할이 너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훈 디컨설팅 이사는 "인도적 지원만큼은 종교계가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종교만이 공지에 몰린 대북문제를 풀 수 있고, 조계종이 추진하는 평화결사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자 대상의 평화교육 등

불교 대북지원 이웃종교 비해 미약 의약품 지원부터 차근차근 늘려가야

부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가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견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북상황에서 종교·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민변 통일위원장 천낙봉 변호사는 "민간 교류 활성화와 필요성이 제

불교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추본 남북교류위원장 제정 스톨은 "의약품 지원 등 누구나 공감할 분야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생애, 문화, 통일 문제는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앞장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이사장은 불자라도 불교교육 실종 이학송 상임부회장, 교육기관 연계 주장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교는 불교의 참정신을 교육과정에서 알리기는 커녕 스스로 정체성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불교교육기관들이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교법사 채용 등 적극적인 종교교육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교육기관 간 연계는 굳이 조계종 종립학교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며 "진각종 천태종 등 불교 종립학교와 함께 불교와 인연이 있는 학교를 회원학교로 확대하고 연계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독교학교연맹의 경우처럼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통일 시대에 맞는 역할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불교 정신을 담은 교육을 피기위한 대안으로 교법사 채용을 꼽았다. 사실 교법사의 경우 동국대 불교대에서만 한해 평

군 10여 명 내외로 배출되는 데 비해 채용은 10년에 1.2명 꼴로

불교사상을 담은 철학교과서 채택, 불교 교육 프로그램 확산으로 청년불자 양성 등 불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각 종립 교육재단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등록된 학교 수는 903개 법인 1668개. 이중 이사장·이사 등 재단 주요인사가 스님이거나 독실한 불자인 학교는 수십개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 교육 기관 연합체인 불자교육인 발굴해 종립학교 늘려야

불자교육인 발굴해 종립학교 늘려야

이뤄져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회장은 "임용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나 감사초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할 수 있다. 교직원 불교특강과 명상프로그램 등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영연 선화여고를 방문해 아자시간 학생들을 격려한 이후 지역 불교교육계의 열의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법보사가 으뜸이라는 말을 들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불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애불 불전함 관리 '갈등' 총무원 문화부, 최종 의견수렴 후 결정 예정



낙단보 마애불 보존과 관리를 두고 대둔사(주지 진오)와 고운사(주지 호성)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단보에는 2월 18일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한 뒤부터 마애불전에 기도를 올리려는 불자들이 부쩍 늘었다.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기도 후 불전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불전함이 없어 불전이 쉽게 바람에 날리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불전함을 갖다 놓고 '전통문화재보호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라는 설명을 게시했다. 실제로 대둔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전을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그러던 중 낙단보의 행정구역인 의성 고운사가 교구본사로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조계종 문화부에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촉발됐다.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수렴해서 파악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법륜 스님 "통일은 민족적 사명"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서 제기... 지도층 역사인식 전환 강조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통일은 한반도를 중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동북아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통일의 필요성과 지도자들의 역사적 인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법륜 스님은 주체제의 '21세기 민족미래, 통일을 향한 결단'에서 국가위상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사회 리더들이 '통일'이라는 토플구를 통해 규모를 확장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통일을 하면 국토 면적은 2배 가량 증가하며 인구 또한 7000만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주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는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약소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2012년 한국의 대

선, 중국의 최고지도자 정권교체, 2013년 미국의 정권교체를 통일의 중요한 변수로 분석했다.

법륜 스님은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통일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다. 신라 삼국통일이나 민족 독립운동 때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스님들과 같이 불교 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평화통일은 이념적, 역사적, 기질, 종교, 승속을 불문하고 불교계가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지도자들의 역사적 인식전환과 화쟁사상을 통해 화합을 이뤄가야 함을 강조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범어사 방화범 5년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가 범어사 방화범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부

산지법은 이 씨의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영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기범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승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사서 : 석운오, 박선혜화)
명예종정 명진 석범은

원로회회장 석흥섭	원로부회장 석우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의장 석범일	기획원장 석범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덕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중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교육원장 교육원장 석무겸	부원장 부원장 석운오
총무부장 석능현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국장 석범진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부장 석혜동	부원장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부원장 석범오
재무부장 석도현						1 국장 1 국장 석대덕	
행사부장 석명오						2 국장 2 국장 석해인	
의전부장 석근홍							

교구총무원
부산총무원장 석정은
김해총무원장 석정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은
대구총무원장 석정명
창원총무원장 석범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마산총무원장 석범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정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신행)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지직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어서 원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입증 안내 ◆
- 1) 입증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근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법회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대원불교 조계종